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설 명 자 료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2.1.14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담 당 자	허남혁 사무관(02-2100-2695)		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형 준(02-3145-7700)		강석원 팀 장(02-3145-7725)		

제 목 : 경향신문의 1.14일자 “시총11위 셀트리온…금융위 증선위, 내주 ‘분식회계’ 여부 논의” 기사에 대한 입장

1. 기사 내용

- ☐ 경향신문은 “재고자산 손실액 고의 축소 정황, 제재 결정될 땐 증시 파장 예상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- “다음주 증선위에 안건 상정 예정” 등의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합병관리청 콜센터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